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437-449
<https://doi.org/10.29212/mh.2024..133.4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그들’의 전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휴머니즘을 끌어올리다

-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

김상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4년 7월 25일, 일본군은 풍도에 있던 청국의 해군을 기습공격했다. 이른바 ‘풍도해전’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1년 남짓 진행되었다.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종결되기까지, 청국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아산과 성환, 평양을 비롯해서 요동까지 이어졌다. 청일전쟁이 벌어진 지역은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중국동북부로 이어졌던 것이었다.

청일전쟁 초반의 주요 전투가 한반도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은 한국에서 한참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저자는 “그간 청일전쟁 관련 연구에서 한국은 타자의 입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어 왔다”라고 지적하

고 있다. 대중 영역에서도, 학술 영역에서도, 청일전쟁은 오랫동안 주요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주된 전쟁의 주체였던 일본과 중국의 연구는 어떠했는가.¹⁾ 나카츠카 아키라로 대표되는 전후 역사학의 흐름이 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고,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 대해 청일전쟁이 대륙팽창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비판적인 입론이 등장하여 논쟁이 진행된 상황이다. 중국 측 연구의 경우 중국 사회가 식민지, 반식민지로 몰락하는 계기였으며, 중국의 근대민족이 각성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땠을까. 물론 1970년대 박종근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50여 년 가까이 연구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학술적인 연구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인 서술이나 교과서적인 서술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면 교과서 단계의 서술이나, TV 등 방송매체에서도 청일전쟁이 단일 주제로 주목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배경으로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서술인 경복궁 점령과 그에 따른 일본의 내정간섭 정도가 주목될 뿐, 전장터였던 한반도의 상황과 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한국에서 첫 번째로 나온 청일전쟁 관련 연구서이다. 이 저서는 기존에 그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청일전쟁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서라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크다.

1) 일본과 중국의 연구사 검토에 관해서는 유바다, 「柔遠之義와 來者不拒의 휴머니즘을 실천한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2024)을 읽고-」, 『역사연구』 50, 2024 참조.

저자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으로 들어가보자. 잘 알려진대로 '청일전쟁'이라는 명칭은 일본, 청나라라는 교전국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청'과 '일'이라는 교전국의 이름이 강하게 인지되어서일까, 이 명칭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장이었다는 것, 전쟁의 목적이 한반도의 지배권이라는 사실은 쉽게 사장되었다. 저자는 여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본서의 제목인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이런 저자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다. '조선인들에게 청일전쟁은 과연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저자는 '조선 사람들이 경험한 청일전쟁'이라는 연구방법을 제기한다. 한국사적인 입장에서 청일전쟁을 다르게 서술하는 방식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 저자의 방법론대로 조선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시각에서 청일전쟁을 어떻게 다르게 서술할 수 있을까. 청일전쟁의 주요 전투는 잘 알려져 있듯 풍도해전 - 아산/성환 전투 - 평양전투/황해해전 - 요동반도 전투 - 위해위 전투로 이어진다. 이 중에서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전투만 해도, 풍도해전, 아산전투, 성환전투, 평양전투, 황해해전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전투는 조선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선인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자의 청일전쟁에 대한 서술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2.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의 구성과 특징

저자는 1990년대 「청일전쟁에 대한 농민군의 인식과 대응」을 발표한 이래 청일전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청일전쟁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저자가 기존에 여러 학술지에 발표한 여러 논문을 재구성하여 저서로 출간한 결과물이다.²⁾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의 구성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부터 아산·성환전투, 평양전투를 시계열 순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세부 장으로 시기에 맞는 주된 내용을 배치하였다. 각 부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은폐와 진실 : 일본군의 왕궁 점령과 ‘보호국’ 구상은 총 4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 일본군의 조선 왕궁(경복궁) 점령에 관한 재검토, 2장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향, 3장 청국군의 동향과 일본군의 출동, 4장 일본의 조선 정책 : ‘보호국’ 구상과 실현 과정이다.

1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2장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2) 조재근, 2008, 「한 일본인 중군기자가 본 1894년 청일전쟁과 조선-니시무라 도키스케의 『甲午朝撫輯』 분석」, 『軍史』 66 ; 조재근, 2010, 「청일전쟁 시기 일본 주요 언론에 보이는 ‘조선 이미지」, 『한국 근대국가 수립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조재근, 2015, 「청일전쟁의 새로운 이해-한국 내에서 전개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 조재근, 2016, 「1894년 일본군의 조선왕궁(경복궁) 점령에 대한 재검토」, 『서울과 역사』 94 ; 조재근, 2020, 「청국군의 아산출병과 내포 지역의 동원」, 『충남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역사적 의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재근, 2021,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향」, 『한국근현대사연구』 96

대한 반향이다. 왕궁이 점령당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조선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자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의 계획, 점령의 실제상황에서 조선군의 대응, 조선인들의 반향을 서술한다. 우선 경복궁 점령의 실상에서, 저자는 '조선군이 먼저 발포하여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일본군의 주장을 반증한다. 일본군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궁궐 담을 넘어서 시작된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설령 조선군이 먼저 발포를 했을지라도, 한 나라의 수도, 그리고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외국군에게 습격당했을 때 발포는 정당방위라는 것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경복궁 점령 이후 조선인들의 반향이다. 생각해 보면 청일전쟁에서 조선이 입은 가장 상징적인 피해는 경복궁이 점령당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저자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여러 주체들의 반향을 서술했다. 우선 서울은 '엑소더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도 자세히 전해졌다. 이 소식에는 실제 상황과 유언비어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후 저자는 조선 왕실의 입장과 '이중외교', 정부 관료들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반응, 재야 유생과 의병, 동학농민군의 인식과 대응을 각 주체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동원내용에 관한 분석이다. 저자는 조선에서 청국에 대해 영접관을 편성하고 인력, 우마, 양식, 선박을 제공한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동원인원 및 지출비용, 우마와 콩 등 양식의 지출내역, 사격의 지출내역을 세세한 수준까지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일전쟁 당시 단순히 "청국군에게 조선정부가 군량을 지원했다" 정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인원과 비용, 양곡의 수량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2부 “야만의 전쟁과 휴머니즘 : 풍도 해전·성환 전투” 역시 총 4개의 장 구성이다. 1장 풍도해전과 성환전투, 2장 동원 시스템과 군표 발행계획, 3장 야만의 전쟁과 선전, 4장 전쟁과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이다. 2부에서 주목되는 점은 풍도해전과 지역민의 관계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대로 풍도해전은 일본해군이 청국 군함을 기습하여 승리한 전투이다. 그러면 남은 청국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태안의 주민들은 해전 이후 목숨을 구해 흘러들어온 청국군을 “일시에 구제”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는 치료하고, 옷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산·해미·홍주·덕산·예산 지역은 태안에서 온 청국군병사, 성환전투에서 패배하여 흩어진 병사들이 마을을 약탈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더해서 이 와중에 영국군 선원만 구조하고, 전리품 획득에만 관심을 가졌던 일본 해군의 모습도 서술하고 있다.

2부에서는 또한 일본의 서울개선식과 전리품 전시, 만들어진 ‘전쟁영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부 4장 “전쟁과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이 주목된다. 저자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취재했던 일본 종군기자들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청일전쟁시기 일본 신문사의 월별 종군기자 현황을 비롯하여 신문기자의 명단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를 우선 정리했다. 나아가 일본 전쟁기사의 기술을 분석하여 당시 유포되었던 조선사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해 나갔다. 저자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비롯하여, 관군과 청국군, 일본군에 대한 논조, 정치사회상의 왜곡 전달 등 내용이 주요 일본 언론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역으로 일본의 언론을 통해 청일전쟁

전후 조선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부 “반성 없는 역사의 반복 : 평양전투와 평안도의 현실”은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평양전투를 다루었다. 제3부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평양전투 직전 청·일군의 동향, 2장 평양전투의 내용과 평가, 3장 평양과 평안도의 현실, 4장 북진 물자와 노동인력이다.

3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평양전투 이후의 모습, 그리고 평안도의 현실과 노동인력의 동원이다. 저자는 평양전투 뿐만 아니라 평양전투 이후의 풍경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각 사료에 표기된 일본군과 청국군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자세히 묘사한 후, 청국군 패주 후의 상황을 든다. 저자는 평양전투 후 평양의 모습을 ‘평양 제노사이드’라고 명명한다. 평양전투 이후에는 청국군과 일본군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희생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평양과 평안도에서 행해졌던 ‘전시대징발’이라는 현실에 눈을 돌린다. 청일전쟁 기간, 이미 성환과 풍도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평양의 물가는 폭등했고, 평양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전 기간 동안 인부의 임금체불문제는 지속되었다. 또한 일본군의 평양승전 이후 ‘조일 공수동맹’을 통한 일본군의 내정간섭, 특히 징발은 점차 늘어갔다. 저자는 일본군의 종군일기 등 사료를 바탕으로 조선에서의 강제징발상황, 동학농민군 소살사례, 군용 수표문제를 제시한다. 평안도의 ‘현실’은 이뿐이 아니었다. 패잔 청국군의 음행과 노략도 있었고, 일본군을 비롯한 일본군 인부들의 일탈 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청국군 포로와 ‘치안방해’ 등과 관련한 참살은 일상화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이 동학농민군의 대량 학살, 뤼순대학살로 이어졌고, 결국 난징대학살의 뿌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지적한다.

3. 장점과 아쉬운점

“백성들은 곤궁해지고 재산은 고갈되었으며 소는 지치고 곡식은 거뭇이 나서 고을마다 모두 텅 비었다”

저자가 발췌한 청일전쟁 당시 평양지역 관리 김영식의 『사정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이러한 조선인들의 사정이다. “청일전쟁 당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으며, 조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이들이 얼마나 곤궁해졌는지, 재산이 어떻게 고갈되었는지, 고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텅 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료를 통해 이를 추적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료를 근거로 서술하는 역사학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이 가지는 장점은 전투 전후 과정에서 일본군과 청국군의 상황, 그리고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는 점이다. 전쟁을 서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투이다. 청일전쟁에 대한 기존 서술 역시 각 전투에서 일본군과 청국군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어떤 식으로 승패를 좌우했는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전투는 짧고 그 후유증은 길다. 전쟁은 전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짧은 전투 이후에는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저자는 경복궁 점령 이후의 경성의 상황과 조선인들의 반응, 성환전투와 평양 전투 이후 모습을 분석하며 조선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들의 전쟁’의 모습을 그려냈던 것이다.

700쪽이 넘는 두꺼운 두께만큼이나 치밀한 사료분석은 분명히 『조선인의 청일전쟁』의 장점이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전반적인 구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총 3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1부와 2부, 3부의 제목은 각각 시계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각 장의 내용이 부의 구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1부의 4장과 2부의 3, 4장은 모두 해당 시기가 아닌 청일전쟁 이후의 시기까지 다루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청일전쟁 이후의 이야기까지 따라가다 다시 성환전투로, 다시 평양전투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각 시기별 전투의 개요가 너무 소략하여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전투의 영향에 서술에 대한 풍부한 서술과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각 전투의 개요와 위치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다. 2부 아산, 성환전투의 경우 전투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있지만,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 3부 평양전투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전투의 내용에 한정해서 평양전투의 경과와 청국군의 움직임에 대한 서술이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 전반적인 전투의 흐름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전투의 세세한 진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과의 서술이 포함되거나, 지도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어땠을까.

사실관계의 실증에 집중한 나머지 일부 의의의 도출이 누락된 부분이 존재한다. 저자는 1부에서 3장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청국군과 일본군의 동원내역을 분석했다. 6월 4일부터 7월 17일 까지 인력동원과 비용의 지출의 세부 내역을 도출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마와 콩의 지출내역, 사격(뱃사공과 결꾼)의 동원내역 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이는 단순히 “청국군이 많은 조선인과 물자를 동원하였다”라는 추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석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분석 이후에 이 동원의 의의가 어떤 것이었다는 점이 소략하다.

조선정부의 입장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저자는 일본군과 청국군이 남긴 기록 뿐만 아니라 조선인 관리들과 동학농민군들이 남긴 기록까지 이용하여 각 전투의 전후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입장은 전투의 상황마다 일괄적이지 않다. 청국군을 지원하는 모습과 일본군을 지원하는 모습 양쪽이 혼재되어 있다. 물론 경복궁 점령 이후에 일본군의 강압, 청국군에 대한 요청과 이들의 약탈, 그리고 전투의 승패라는 전황의 모습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각 시기마다 조선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일본군의 평가와 역사서술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저자가 구상한 근대 3부작 중 하나이다. 저자는 2017년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러일전쟁과 한국사회』를 펴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종과 대한제국 -황

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을 펴냈으며 2024년에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을 펴냈다. 시기상으로 가장 앞 시기인 청일전쟁이 오히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이후에 출간된 것이다.

이 근대 3부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선인의 시각’과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에서 “러일 간 전쟁의 실제 무대였던 한국과 중국 동북부 지역은 단지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부여되어 있을 뿐 정작 지역사정과 지역민의 삶은 시야에서 사라져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쟁 수행과정에서 자행된 러시아와 일본의 무차별적인 광범위한 폭력과 인적·물적동원, 여기서 파생된 생존을 위한 동시대 한국인들의 지난한 몸부림 들에 대한 조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³⁾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후 러일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며 러일전쟁 시기 평안도와 함경도에 주목, 인적, 물적 피해 상황과 전시동원, 포로문제까지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후 발간된 『고종과 대한제국』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시기부터 러일전쟁 전후 기간까지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내치의 기반, 국가상징장치에 주목했다. 또한 제한제국국제와 핵심 통치기구, 경제문제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 3부작을 통해서 한국 근대사회의 구조적 틀과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서술했다 밝히고 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이 근대3부작 중 가장 앞시기이지만 가장 늦게 나왔다. 저자는 방대한 사료의 양으로 인해 가장 분석이 늦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책을 읽고 크게 두 가지 지점을 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메이지시기 일본군에 대한 평가이다. 시바 료타

3) 조재곤, 2017,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러일전쟁과 한국사회』, 일조각, 7p

료로 대표되는, 메이지 시기를 다룬 일본의 대중문화에서는 ‘어두운 쇼와시기와 대비되는 화려한 메이지시기’를 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 ‘화려한 메이지시기’라는 언설은 작은 나라가 큰 청국과 러시아를 이기면서 세계에 도약했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연결된다. 전후 일본 근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일본 군사사의 문제의식도 이러한 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 ‘소화 시기의 일본군’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메이지 시기’와의 비교로 이루어진다.

소위 ‘총검돌격’, ‘카미카제’로 대표되는 일본군의 비합리성, 광신적인 성격은 이미 전후 직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면 일본군이 이러한 광신적인 성격을 띤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문제제기에서 많은 일본군사사의 저작들은 일본군의 성격이 ‘초기에는 엄정한 것’이었지만, 이후 변화를 거치면서 비합리적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었다. ‘엄정한’ 일본군의 모습은 과연 조선인들에게도 엄정한 것이었을까. 저자가 밝힌 일본군의 만행은 전혀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복궁 점령에서부터 징발, 동원, 참살의 모습까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보였던 일본군의 모습은 사실 청일전쟁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서술의 방향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의 부제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흔히 쓰이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이다. 말 그대로 이제까지 청일전쟁의 역사는 당시 조선인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특히 승자인 일본의 시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시각에서 이런 서술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의 문제의식은 ‘승자의 기록’이라는 부제와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서술의 무대로 끌어오느냐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당시 조선군을 비롯하여, 서울에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단초를 여러 사료를 통해서 보여준다. 또한 청국군과 일본군에서 조선인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수동적인 반응과 피해를 넘어서 ‘유원지의’와 ‘내자불거’라는 사실을 도출해 낸다.

저자는 승자만의 역사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발굴한 것이다.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찾아 낸 것은 전쟁이라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휴머니즘’이었다.

영문제목 : Finding Humanity in the War of “Theirs” Through the Eyes of “Ordinary People”

영문저자명 : Kim, Sang-Gyu

